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원초적으로 성막의 번제단이 떠오른다.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이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바로 번제단에서의 속죄함과 주님과 만났다면 불가능하기에 그렇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과 만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대속의 깊이와 한량없는 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체험케 하여 변치 않는 신앙을 갖게 하는 근본적 요인이 된다.

속죄제(하타트:ha;F;레4:1-21)의 특징은 제사만 제사장이 맡고 그 이외의 것은 속죄코자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죄지은 자가 속죄하기 위해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번제단 북쪽에 있는 제물을 잡는 곳에 가져가 묶게 된다. 그러면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은 속죄하고자하는 본인이 한다. 먼저 제물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다. 이때 나의 죄를 고백하여 안수하므로 죄는 속죄 제물에 전가되었고 제물의 흠없는 정결함은 나에게 옮겨지는 모습인 것이다. 죄사함의 시작이다.

이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주님을 믿음으로써 속죄함과 그분의 의로 의로워짐을 보여준다(롬5:21, 빌3:9).

그리고 제물을 잡기 시작한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제물과 씨름하며 죽을 때까지 몇번이고 급소를 찌르고 목을 따는데 온몸에 피가 튀어 피투성이가 되고 피비린내로 범벅이 된다. 이 힘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앞에 내 죄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깨우치며 죄를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깨달아야 한다. 또한 받쳐진 제물은 죄 때문에 처절히 죽어야하는 내 자신임을 발견해야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가를 체험해야 한다. 이 때 하나님은 죄가 죽는 것을 보시는 것이다.

따라서 속죄제는 진실된 죄의 회개와 속죄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하게 된다.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회개에도 참 회개 참 믿음이 없다면 무의미할 뿐이다.

제물의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전달하면 제사장은 그 피를 7번 번제단에 뿌리고 사방에 있는 네 뿔에 마른다. 제단에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주의 보혈로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함의 성취를 뜻한다(히9,10장). 사방의 뿔에 피를 바른은 죄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므로 속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은 피는 번제단 아래 붓는데 속죄를 위한 보혈을 뜻한다. 따라서 주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이9:12)가 이루어짐과 함께 새 생명임을 말한다.

이어서 죽은 제물의 가죽을 빼기고 각을 뜨고 가장 귀하고 기름진 부위인 콩팥과 기름을 따로 구분하여 제사장에게 주어 이를 태워 제사를 드리게 한다. 곧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진실되이 드리는 마음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의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 밖의 정결한 곳에서 전부 태우게 되는데 이 의미는 주께서 성 밖에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구속사를 이루신 것을 상징한다(히13:11,12).

이러한 제사과정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수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요1:29)으로 나의 죄 때문에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갖 고통과 수모와 징벌과 고난과 온몸의 뒤틀림과 보혈을 흘리시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말한다(사53장, 요일1:7). 주님이 받으신 말할 수 없는 저주와 버림이라는 아픔의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구속이다. 이러한 역경의 과정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있던 벽(화염막)이 무너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롬8:1, 벰전2:22-25). 주가 베푸신 희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이것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회복과 화해를 위함이며(히9,10장, 13:12-16) 이로 말미암아 이신칭의가 이루어져 구원과 부활로 연결 된다(롬3:22-26).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가 가슴속에 살아 있어서 이신칭의안에서 말씀대로 죄와 세상을 도려낸 거룩한 삶을 살아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 거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의 신부의 영성으로 신부수업에 매진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겔18:19-22). 끝까지 내 자신을 성찰하자. 무엇이 부족한가를.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입성을 성취하여야만 한다.

할렐루야
이곳 파나마 Yaviza에서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늘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이곳 영혼구원을 위해 동역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파나마는 코비19사태를 3월로 1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조치를 해제하였지만 3월말 브라질변형코비19가 발생하면서 다시 여러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La Palmera마을 개척교회(아직 교회 이름 미정)건축은 지붕공사까지 끝이 났습니다. 바닥공사와 그 외 건축 진행을 위해 먼저 지반을 0.5m를 높여야 합니다.
비가 오면 지대가 낮아 침수가 되는 곳이라 먼저 지반을 높이고 나머지 건축 재정이 확보되는 데로 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신학교를 3월 4일 오픈 하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이지만 이곳 목회자들과 영성교육과 목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첫 강의로 은혜한인교회 한 기흥목사님의 목회자 자질론 강의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기가 힘든데 코비 19로 인해 이런 강의들을 듣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선교사에게 이곳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달란트가 없는 선교사에게는 기도만 해 왔습니다.

작년2월에 도미니카공화국에 2주간 음악교실에 Ana자매를 보내 멜로디카악기를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이곳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가르쳐 교회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려 했으나 코비19으로 지금까지 음악교실을 못 열다 올해 3월8일부터 한주간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멜로디카음악교실을 열었습니다. 한주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배우고 마지막 날 금요일에 연주하고 각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각 교회에 어린이들이 멜로디카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정글에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인디안 교회 결혼식, 침례식등 바쁘게 보내고 작년부터 미루어 오던 건강진단 및 몇가지 일을 보기 위해 26일 한국에 도착해 지금은 자가격리(2주) 중에 있습니다.



<기도제목>

1. La Palmera마을 개척교회 건축의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 교회 건축이 완공 되도록.
2. GMI 신학교를 통해 동역자들이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기를..
3. 멜로디카를 배운 주일학교선생님들이 각 교회서 어린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4. 학교와 농장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도록.
5. 선교사 한국 방문기간 동역자들이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6. 한국 방문기간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계획한 일정들이 잘 진행 되도록.

2021년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살롬이 가득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인사를 '살롬'으로 시작합니다 ^^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이 주는 정보를 의지하여 결론에 이른 것이 예수님과 그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
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 그때까지 확실해 보였던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의 수동적인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코로나와 여러 격변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한대로 혹은 원하는대로 흐르지 않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감에 사로잡
히지만 이 삶의 굴곡과 어두운 계곡에서 비로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쭙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두 믿
음으로 승리하시길 항상 기도합니다.

2021년을 위해 주신 말씀
매년 12월 즈음해서 다음해를 이끄시는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주실가에 대해 주님께 더욱 귀를 기울이는데, 2021년을 위해서는 요한복음
14:27을 통해 '임마누엘'과 '살롬'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년 마지막 기도편지에서 나눈 것처럼 저희는 몇 년간 알바니아 현지인 CCC교
회개척팀과 함께 시내에 교회를 개척해서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성경공부로 섬겨왔습니다. 작
년부터 알바니아CCC본부에서 이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구심점을 넓히고자 하여 대표 리더부터 몇 팀들이 저희 개척교회에 합류하게 되면서
갑자기 CCC본부가 된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나눔과 기도 끝에 저희는 다시 개척하러 나오기로 결정하고,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찾던 중 가장 적합하게 보
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서류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결국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을 내려놓고 City Church건물에서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있어서 주님이 최우선 되었음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다른 말씀이 올 때까지 인내하다 보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준비
해주신 곳으로 옮길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님께서 온전히 모든 사역과 사역자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긍정적인 부분은
기쁨함으로 받고 저희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의 CCC와의 팀사역은 저희 부부에게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때문 이들의 사역방향과 스타일이 저희 눈엔 너무나 복음적이지 않
고 복음이 값싸게 재포장되어지는 것 같아서 속이 타서 부족한 제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주님은 그들도 가르치시고 저희에게는 더욱
낮은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맞이하는 이번 주에 주님의 내려놓으심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며 매일 우리가 생각하
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음으로 제자들이 걸었던 사도행전적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새로 만난영혼들
코로나로 학생들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지만 아내와 저는 주일 예배 외에 평일에는 학생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한글도 가르치고 성
경공부도 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나(Jona 16)와 오빠인 아리(Ari 17)가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돌
아가셨고 아버지가 키우실 형편이 안되어서 고모님 부부가 아이들을 맡아 키우고 있으신데, 요나는 아내를 만나면 이 코로나 상황에도 외락 끌
어안으며 뽀뽀를 하고 정겨움을 표현합니다. 저희 부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들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만난지 몇 주 되지 않은 제시카(Jesika 22)라는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한글에 대한 열망과 또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저희에게 마음 문을 열
어 준 친구인데 이번 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한글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교회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나 봅니다. 한국에 장학생으로 대학원 과정을 가고 싶은 꿈이 있는 친구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지 기대해봅니다.

에스마는(Esma 22) 간호학과 4학년 졸업생입니다. 무슬림 학생인데 아내와 매주 만나서 주님에 대해 듣고 또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조용한 친구라서 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아내에게도 마음을 여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 주시고 그 심령을 열어 주셔야 말씀이 생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
다. 가끔씩 열심이 특심이라 복음의 도구로서가 아닌 복음의 "주체"가 되려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를 깨달을 때마다 다시 주님의 긍휼
하심에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임을 고백합니다.

알바니아에서의 사역을 통해 주님은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선교지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알바니아
학생들도 각자 자신의 꿈과 욕망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지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이 저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들을 만나 주시고 마음
을 어루만져 주셔서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간곡히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살롬을 기도하며..



- <기도제목>
1. 주님과 임마누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3. 주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과 같은 형제와 사마리아 여인같은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Grace International Church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5. 시온이가 헝가리에서의 비대면수업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잘 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한기홍목사님과 미국은혜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드립니다.
태국은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로 바뀝니다.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고 3월부터 5월까지가 여름입니다. 6
월부터 11월까지가 우기철입니다. 지금 태국은 가장 더울때입니다. 3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해서 4월에 최고로 덥고 5월까지 덥습니다. 물론
한국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년 내내 덥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더운 달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방학이 4월에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
만 대체로 3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가 방학입니다. 5월 중순에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보플러이교회 소식

태국도 현재 코로나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방콕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오백명이상 천명 가까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대응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도시는 방콕과 방콕 주변 도시에서 오는 사람은 보건소에 신고하
고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도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은 코로나 이후 관광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경
제가 힘들어지고 불평이 쏟아지다 보니 4월 1일부터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15박에서 11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백신접종자에 한해서는 일주일로 줄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푸켓을 비롯하여 관광지 몇 군데는 백신 접종자에 한
하여 자가격리 없이 다닐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칸짜나부리 보플러이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칸짜나부리는 코로나 확진자가 적어 아직 별다른 제재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
얀마성도들이 다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많은 미얀마인들이 숨
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희 성도들중에도 가족들이 미얀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 주일 기도시간에 함께 미얀마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세 명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3월에도 코이노니아 전도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실습도 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
니다. 태국교단 가입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모든 절차가 마치고 가입하기까지는 대략 일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 예배를 드리는 2층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에어컨이 없어서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1층
에 에어컨 한대를 켜고 선풍기를 틀면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전력공사에 문의하니 전압을 증강하는데 이백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저희 건물이면 하겠지만 우리 건물도 아닌데, 그 돈을 주고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옮길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팔기 힘든 건물인 것이 밝혀지면서 이번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었
습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 창문을 열지 않고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맘이 흐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가족 소식

막내가 지난 토요일 4월 10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시험 준비하면서 힘들었는지, 다 포기하고 싶다고 여러 번 문자가 와었습니다. 단
기간에 이해하기 힘든 많은 분량을 배우려고 하니 힘들었나 봅니다. 지금 아내와 아이들이 거주하는 선교관을 4월 말에 나와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였기에 이제 다른 선교관으로 옮겨야 하는데, 합당한 선교관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미국은혜한인교회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1.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2.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예배가 되도록
3. 보플러이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4. 세명의 신학생들이 잘 훈련받고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5. 한국과 태국에서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6. 막내 영민이가 검정고시 합격하고 태국에 올 수 있도록
7. 아내와 아이들이 거주할 합당한 선교관을 찾을 수 있도록